

주요 내용

■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대응 전략

중국의 WTO 가입 전망

-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WTO 뉴라운드 시작되는 올해 11월 내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
- 미국측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측은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原締約國, 개도국 지위로 가입시, 최혜국 대우 및 일반특혜관세 보장, 유치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실시, 세이프가드 발동 등이 가능해짐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중국의 수출 및 외자 유치가 확대되어, 산업·수출 구조 고도가 전망되며,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내 경제 개혁이 가속화될 것임
- (부정적 영향) 내수 시장의 개방 확대로 산업 및 금융 부문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사회 불안이 가속화될 수도 있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쟁 격화) 중국은 최혜국 대우 및 일반 특혜 관세를 보장받음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 제품의 한중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수입) 외자기업 진출 확대에 의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품뿐만 아니라, 가전·기계 등 단순 자본집약적 제품의 수입도 크게 증대할 것임
- (수출) 對중국 수출 구조가 원부자재(부품 등) 수출 중심으로 이동,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의 이동 경향이 뚜렷해질 것임

대응 전략

- (세계시장) 품질 개선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시장) 중저가 위주의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대비하여 각종 산업 피해 구제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꾀해야 함
- (중국시장) 신규 개방 시장인 통신, 보험업 등의 시장 공략이 필요.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라이선싱 등 위험 최소화 투자 방식의 활용이 필요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대응 전략

김 정 균, 황 동 언

중국의 WTO 가입 전망

● 최근 상황

- 지난 4월 朱鎔基 총리의 방미시 중국의 WTO 가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함
-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뉴라운드 협상 시작에 맞추어 가입을 재추진한다는 데에는 합의하여, 조만간 실질적인 재협상이 추진될 것임
- 미타결 분야는 은행·증권시장, 음악·영상시장 개방 등임

● 미국과 중국의 입장

- (미국) 일부 산업계의 반대, 스파이 의혹 등으로 인해 의회의 對중국관이 악화되었으나, 산업계의 압력 등으로 가입 지지의 가능성이 높음
- 대다수 기업은 WTO 가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공화당도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산업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WTO 가입 지지로 전환할 가능성 높음
- 미국은 최대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발 여론을 무마할 것으로 보임(미국은 일본의 GATT 가입시 시장을 충분히 개방도록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일본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 (중국) 原締約國¹⁾ 및 개도국²⁾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나친 압력을 수용하면서까지 WTO에 가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는 중국은 수출 및 투자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WTO 가입에 매력을 가질 수 밖에 없음

1) 원체약국이 갖는 특혜로는 △ 무차별적인 최혜국대우 보장 △ 국제수지,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이 있는데 비해, 신규 가입국은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됨

2) 개도국 지위의 특혜로는 △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재협상 △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세이프가드의 발동 △ 특정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정책적 조치 가능 등이 있음

< 현재까지의 미중간 WTO 가입 협상 합의 내용 >

분야	내 용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제한 폐지 -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45%→12% △밀감류: 40%→20% △사과: 30%→10% △치즈: 50%→12% · △포도주: 65%→20% 등 - 밀수입쿼터를 1999년 730만 톤에서 2004년 930만 톤으로 증대 - 중국 정부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공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관세 9.44%로 인하(주요 공산품의 경우 평균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까지 반도체,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초고속 정보처리망 등에 대한 관세 대부분 폐지 · 2005년까지 정보기술분야의 전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자동차 수입 관세를 현행 80~100%에서 2005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요 부품 수입 관세를 10%로 인하 - 중국내 도소매시장, 운수시장 등을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미국 기업에 대해 수출입권 허용
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6년 이내에 외국기업은 통신서비스분야 지분 49%까지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등 부가서비스사업은 51%까지 소유 가능 · 이동통신분야에서 GSM 대신 미국의 CDMA 방식 선택 - 금융: 외국계 은행·보험사에 대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독자은행의 경우, 법인 설립후 8년 뒤 인민폐 영업 허용 · 현재 廣州와 上海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보험사의 영업지역을 24개 도시로 확대 - 항공: 항공 노선의 취항 및 미국 항공기의 구매(4억 달러 규모) - 서비스업: 3년내 내수 비율 제한 점진적 철폐

< 美中간 미타협 내용 >

구 분	내 용
금융, 증권	-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핫머니 유입에 경계감을 표시
음반, 영상	- 사회주의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금융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WTO 가입후 5년동안 금융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 - 미국은 가입전에 모든 양보를 주장함
내외국인간 차별	- 중국은 WTO 가입후 3년동안 단계적 폐지 주장

- 가입 전망

- (가입 조건) 미국측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측이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시기) 올해 11월말 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
 - 올해 11월 WTO 뉴라운드 실시로,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가입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가입 논의가 2002년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임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수출 확대와 수출 구조 고도화

- 중국 경제의 공식적인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으로 무역 자유화의 이득이 예상됨
 - 중국의 WTO 가입시, 미국에서 매년 요구되는 NTR(Normal Trade Status: 정상 무역관계, 이전의 최혜국대우(MFN)) 갱신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수출 상대국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피할 수 있음
 - 개도국 지위로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의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선진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 중국은 가입 이후 전통적 경쟁력 우위 제품인 경공업 제품 뿐만 아니라 가전 등 전기·전자기기 및 기계, 수송기기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제고될 것임
- 미국의 高盛亞洲研究部는 중국이 WTO 가입후 2005년까지 관세 인하 및 각종 수입제한 조치 철폐시 매년 GDP가 0.5~0.6%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KOTRA 베이징무역관, 99.4.26)
 - 향후 5년내 관세 인하 투자 개방 확대시 대외교역량이 98년의 2,300억 달러에서 2005년 6,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직접 투자도 98년의 약 450억 달러에서 2005년 1,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 내수 시장의 개방 확대

- 중국은 WTO 가입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미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WTO 가입시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될 것임
- 1999년 1월 관세 인하 조치로 평균 수입 관세율은 16.8%로 낮아졌음

< 중국의 관세율 인하 조치 추이(1992~1999) >

실시 시기	주요 내용		실시 시기	주요 내용	
1992년 1월	대상 품목	25개	1996년 4월	대상 품목	4,994개
	평균 수입 관세율	42.5%		인하폭	36.0%
1993년 1월	대상 품목	3,371개	1997년 10월	대상 품목	4,874개
	인하폭	7.3%		인하폭	25.6%
	평균 수입 관세율	35.9%		평균 수입 관세율	17.1%
1994년 1월	대상 품목	2,898개	1999년 1월	대상 품목	1,014개
	인하폭	8.8%		인하폭	1.8%
	평균 수입 관세율	36.0%		평균 수입 관세율	16.8%

- 외국기업의 내수 시장 진입으로 금융, 통신,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中國電信의 경영 악화 및 가격 인하 압력 및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의 경영 위기, 미국영화 유입에 의한 중국 영화산업 타격 등이 예상됨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직접투자 유치 확대

- 중국 기업과 은행의 대외신용도를 향상시켜 외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노동력과 외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폭 증대할 것임
- 제도적으로는 내국민과의 차별 대우, 현지 국산 원부자재 사용 의무, 수출이행의 무비율 등 각종 투자 규제가 폐지·완화될 것임
- 외국 자본과 기술 유입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체제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산업 구조 및 무역 구조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임

● **경제 개혁 가속화**

- WTO 가입국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경제 개혁이 가속화될 것임
 - 즉 WTO 가입을 정치·경제 개혁의 가속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WTO 가입시 중국 사회 내부의 개방, 민간 기업 활성화 및 부실 국영기업의 도태, 국제 기준에 맞는 각종 법령의 정비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 국유기업의 해체, 합병 등의 개혁이 추진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경제 불안의 가능성도 존재함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경제 교류

● **세계시장에서의 경합 관계 가중**

- 중국의 경우 의류, 완구 등의 경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가전 등 중저가 제품의 세계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임
 - 이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GSP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임
- 미국시장에서 한중 양국간 점유율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 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임

< 미국시장에서 한중간 점유율 추이 비교 >

(단위: 억 달러, %)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가율(94~98)
미국 총수입	6,637	7,435	7,913	8,702	9,139	9.5
對중국 수입	388 (5.4)	456 (6.1)	515 (6.5)	626 (7.2)	712 (7.8)	12.9
對한국 수입	197 (2.9)	242 (3.3)	227 (2.9)	232 (2.7)	239 (2.6)	6.9

자료: KOTIS

주: () 안은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점유율을 나타냄

- 최근 5년간 중국은 저렴한 노동 비용과 품질·기술 수준 향상을 바탕으로 한국보다 두배에 가까운 연평균 12.9%의 미국시장 수출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중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종래의 단순 가공형 상품의 수출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추구형 상품 수출로 수출 구조를 전환해나가고 있음
- 경공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일반기계, 철강제품 등 우리의 주력 상품인 중화학제품의 수출을 증가시켜, 한국 제품의 수출을 크게 위협할 것임

< 미국시장에서 한중 간의 주요 품목별 점유율 비교 >

	한국		중국	
	1994	1998	1994	1998
의류제품	5.7	⇒ 5.9	15.3	⇒ 11.4
완구 및 운동용품	1.8	⇒ 1.7	46.4	⇒ 59.2
전기·전자	7.6	⇒ 6.6	6.9	⇒ 10.0
일반기계류	3.0	⇒ 3.0	2.2	⇒ 4.9
철강제품	6.4	⇒ 5.5	5.3	⇒ 9.5
자동차	1.7	⇒ 1.5	0.4	⇒ 0.7

자료: KOTIS

- 미국 이외에 유럽, 일본, 중남미 등의 제3국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의 경공업 및 중저가 중화학제품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WTO 가입에 호의적인 유럽, 일본과의 교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제품의 수출을 크게 위협할 것임

● 한국 시장

- 상호 교역 규모가 증가하겠지만, 한국의 對중국 수출 증가폭보다는 중국의 對한국 수출 증가폭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우 WTO에 가입하더라도 내수시장의 진입·유통 장벽이 높고, 개방일정 자체도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국의 시장 개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인 단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對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집약적, 단순 자본집약적 중국 제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
 - 전자·반도체 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 및 외국인 기업의 진출로 인한 기술·품질의 증대로 상당한 수입 증가가 예상됨
 - 현재 국내 기업의 OEM으로 수입되는 중저가의 가전 제품 부분 등에서도 향후 중국 기업의 직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NTR(Normal Trade Status: 정상무역국지위) 대우를 누리게 될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나 공산품, 모조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임

<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구조 비교(1998년) >

(단위: 백만 달러, %)

SITC	품목명	수출		수입	
		수출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합계	11,944.0	9.0	6,484.0	7.0
0	식품 및 산동물	116.6(1.0)	4.8	753.6(11.6)	16.4
1	음료 및 담배	5.6(0.1)	3.5	1.0(0.0)	0.4
2	비식용 원재료(연료 제외)	419.4(3.5)	27.2	370.0(5.7)	5.1
3	광물성 연료, 윤활유	1,149.6(9.6)	25.0	727.8(11.2)	4.0
4	동식물성 유지, 왁스	4.2(0.0)	13.8	5.0(0.1)	1.7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2,731.5(22.9)	26.7	509.6(7.9)	5.5
6	재료별 제조 제품	4,306.9(36.1)	15.1	1,730.5(26.7)	15.6
7	기계 및 운수 장비	2,572.6(21.5)	4.0	1,681.8(25.9)	5.4
8	기타 제조제품	629.8(5.3)	5.1	703.9(10.9)	10.9
9	기타 미분류 상품, 취급품	7.8(0.1)	0.1	0.2(0.0)	0.0

자료: KOTIS

주 : 1) () 안은 전체 對중국 수출(또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구성비는 전체 한국의 수출(또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중국 시장

(교역)

- 對중국 수출 상품의 구조가 원부자재 수출 중심으로 이동하며,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의 경향이 뚜렷해질 것임
 -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對중국 진출이 증가하기 때문임
 - 화학, 유화, 철강, 섬유제품의 경우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한국은 주

로 원부자재, 부품 등을 중국은 주로 완성재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가전 등의 경우 WTO 가입후에도 고관세와 행정 규제 등이 일정기간 지속되고 외국 제품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어서, 급격한 對중국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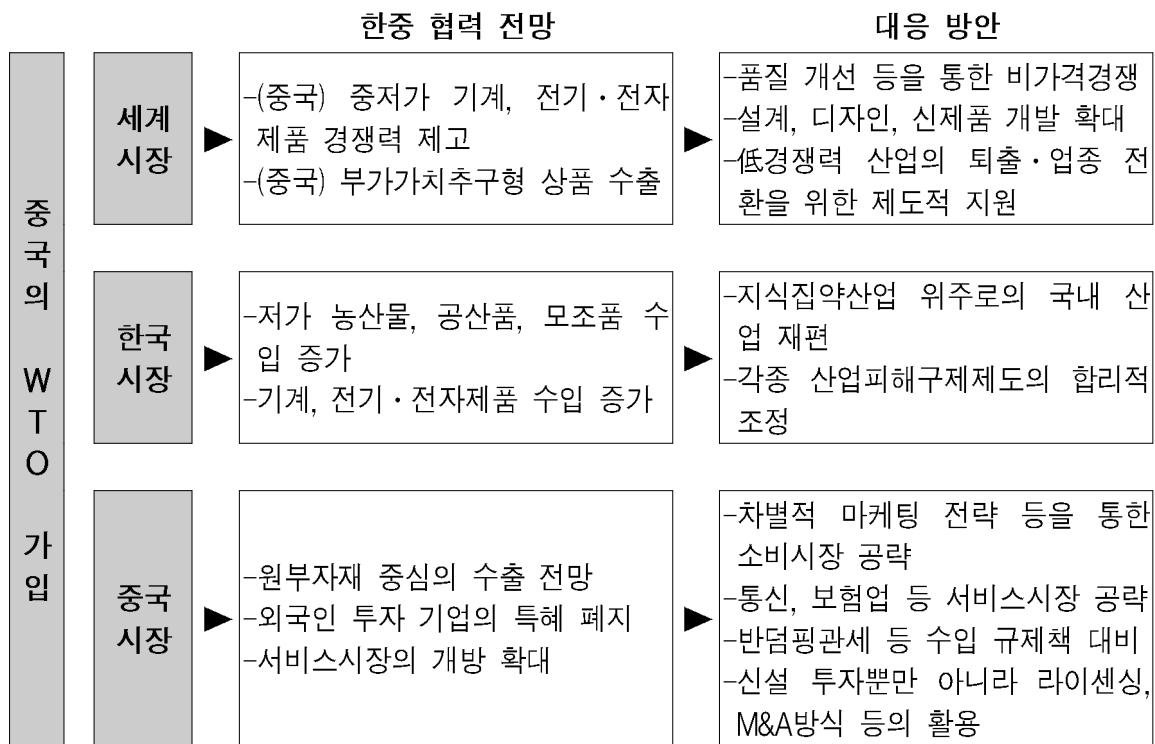
(투자)

- 對중국 투자는 상당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WTO 가입으로 중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특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임
-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對중국 투자가 점차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 기존의 섬유 등 노동집약적 분야로부터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 기계 등 기술·자본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임

우리의 대응 방안

● 세계시장

- (기업)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대비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
 -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개발의 확대 등을 통해 비가격 경쟁 역량을 확보함
 - 특히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설계, 디자인, 신제품 개발 기술 등의 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 수출 상품 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低경쟁력 산업의 퇴출·업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한국시장

- (기업) 지식 집약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재편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지식 집약적 산업 위주로 국내 산업을 개편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야 함
 - 금융 등 첨단 서비스 관련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중국의 수출 공세를 제어하면서도, 중국측의 불만 및 이의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정비 필요함
 - 산업 피해 구제 제도, 특히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물 제품의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양국 관리 제도, 농업보조금제도, 수입제한제도 및 관세체계의 조정이 필요함
 -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무분별한 부과를 보복 관세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對중국 수출

- (기업) 중국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차별적 마케팅 전략 및 홍보, 중국 바이어 유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소비 시장 공략이 필요함
 - 계층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광고 및 스폰서 지원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강화해야 함
- 중국의 시장 개방 방향에 알맞는 전략이 필요함
 - 중국의 WTO 가입시 제조업 분야의 진출은 물론, 정보통신업이나 금융업(보험업) 등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이의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
 - 특히 이동통신 방식으로 GSM 외에 CDMA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 중국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주택·양로·의료보장 체제의 개혁에 따라 각종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진출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자동차, 가전, 첨단 산업 등 WTO 가입후 중국의 정책적 보호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부품·반제품 수출 등의 우회 수출 노력이 필요함
 - 보호 산업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아 향후 원부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 밀수 단속은 수입 억제를 위한 경과 조치로 계속될 것이므로, 바이어에 대한 신용도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정부) WTO 가입후에도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반덤핑관세 등의 각종 제도를 통해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응책이 필요함
 - 중국의 공급 과잉 및 재고 누적 등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와 반덤핑 조사 강화 방침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對중국 투자

- (기업) 외국인 기업 개방 확대에 따라 커다란 내수 시장 중 하나인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중국의 중점 목표 사업인 농업과 환경 부문에 대한 진출을 강화해야 함
- 대규모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외에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설비(시멘트, 철근, 판유리 및 機電제품) 수출 등에 주력해야 함

-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 진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등의 분야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단독 진출이 힘든 경우 일본 및 홍콩, 화교 자본과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음

- 중국내 경쟁 심화에 따라 투자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함

- 투자 위험이 큰 신규 신설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라이선싱, M&A 방식의 직접 투자 등 투자 유형을 다양화
- 연해 일변도의 투자에서 벗어나, 내륙 지방 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화북 지방 등 중부 내륙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 작년 전력 협력 등과 같이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프라 시설 건설 등 기업의 對중국 진출을 적극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함

(jkkim@hri.co.kr ☎ 724-4049, hde@hri.co.kr ☎ 724-4055)